

# 1ℓ 정화에 물 20만ℓ 필요한 폐식용유.. 매각했더니 돈이?

2024-06-18 |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mailto:Replaykim@jibs.co.kr)) 기자

글자크기

+

-



**1년간 2t 매각.. 250만 원 세외수입**

**재활용 도움센터 수거함 설치·처리**



재활용 도움센터에 마련된 폐식용유 수거함

제주시가 재활용 도움센터로 수거한 폐식용유를 판매해 환경 보호와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재활용 도움센터로 모인 폐식용유 약 2t을 매각한 결과 25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주로 신문지 등 종이류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었지만, 튀김 등에 사용한 많은 양의 식용유를 처리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폐식용유를 하수를 통해 버릴 경우 1ℓ를 정화하는 데만 무려 20만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재활용 도움센터 85곳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해 폐식용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유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시행 초기인 2006년 0.5%에서 올해 4.0%, 2030년 8.0%로 증대하고 있어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무심결에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순환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mailto: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